

# 성철 스님 법어, 랩으로 재탄생

### 조계종 포교원, 랩 경연대회... 모집 마감 31일

‘힙합(Hip-hop) 열풍’이 불교계에도 불어왔다. 성철 스님 법어로 ‘장작 랩’을 선보이는 무대가 열린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집무대행 송목)은 11월 14일 ‘랩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되다’를 개최한다. 젊은 세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장르인 힙합을 통해 기존 포교 프로그램을 탈피, ‘노래와 랩’이라는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법경 스님,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가수 아웃사이더(아씨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석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법문 말씀과 젊은 층의 음악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큰 포교’라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돼 새 포교의 장을 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유명 래퍼 아웃사이더는 “요즘 세대가 표현에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성철 큰스님 말씀을 자신만의 랩으로 소화하며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1·2·3등을 가리는 것보다 가사를 해석·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포교”라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법문 말씀과 젊은 층의 음악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큰 포교’라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돼 새 포교의 장을 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유명 래퍼 아웃사이더는 “요즘 세대가 표현에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성철 큰스님 말씀을 자신만의 랩으로 소화하며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1·2·3등을 가리는 것보다 가사를 해석·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포교”라고 말했다.

**백련문화재단 · 파라미타 후원**  
**심사위원에 래퍼 ‘아웃사이더’**  
**대상 500만원 등 상금 1,080만원**  
**수상작 음원 · 앨범 출시 계획도**

을 통해 선발된 10여 팀이 14일 본선무대를 갖는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금상 청소년 100만원, 일반부 200만원 △은상 청소년 50만원, 일반부 100만원 △동상 청소년 30만원, 일반부 50만원 △인기상 청소년 20만원, 일반부 30만 원 등 총 1,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음원 및 앨범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지속적인 포교 효과를 창출하고, 불교

계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으로는 가수 아웃사이더, MC 메타 등 나간다. 아웃사이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철 스님 법어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라며 “운율을 위해 말을 약간 덧붙이는 등 개사는 허용하지만 되도록 법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기보다 표현력과 전달력을 중점적으로 살릴 것”이라 밝혔다.

이어 아웃사이더는 “힙합이 큰 인기를 끌며 대중화되는 시점에 스님 말씀을 랩이란 장르에 접목한 시도는 합법인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며 “힙합이 디스(Disrespect)-disrespect 준말로 상대방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힙합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 본질에는 ‘리स्पек트(Respect, 존중) 문화’가 있다. 이번 대회가 존중·존경 문화를 일깨우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서 및 지정가사와 제공 비트는 파라미타홈페이지(www.paramita.or.kr)서 다운로드 해 데모파일과 함께 이메일(723-6166@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포교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백련불교문화재단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며, 조계사와 아씨커뮤니케이션이 후원한다. 본선 무대에는 아웃사이더, MC메타, 투탁&루팡(프리마데) 축하공연도 열릴 예정이다.문의 (02)723-616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10월 10일 대웅전 상량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해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 “불사는 마음 키워가는 수행의 연장선”

###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10일 대웅전 상량법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대웅전 상량법회가 10월 10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해수 스님을 비롯해 김용건 경남도의회 의장, 김용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고문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해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행 큰 스님께서

는 생전에 절을 짓는 불사의 과정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외형의 것이 아니라 신도님들과 더불어 마음을 키워가는 공부를 한다는 한마음 한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며 “통영지원 대웅전 불사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고 당부했다.

김용건 경남도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무량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남은 기간동안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고문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량법회를 계기로 다시 불사를 시작한다는 초발심으로 더욱 더 정진해 대웅전 불사가 회향되는 그날까지 내면의 불사도 함께 꾸준히 이어갈 것을 서원한다”고 말했다.

**통영=김주필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교계 반대 잇달아

### 불시넷 등 반대 성명 발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불교계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10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정화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화 또는 자유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역사관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미래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확립화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10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확립되고 단선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면 이는 심각한 역사왜곡이자 역사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 “인력·콘텐츠 투자 확대로 방송 역량 증대”

###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13일 간담회서 밝혀

지난 10월 8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사진)이 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밝혔다.

선상신 사장은 10월 1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옥 건립, TV 부문 분리 등의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선 사장의 불교계 기자 간담회는 9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교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 사장은 전임 사장 시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옥 건립에 대한 계획을 가장 먼저 설명했다. 선 사장은 “현재 상암동 DMC 안에 630여 평 부지가 나왔지만 고도 제한이 있어 임대 수익 등이 발생하기가 어려워 부절적하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차후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신사옥 건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방송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TV 부문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선 사장은 “TV 부문을 분



리하되 경쟁력 갖춰 업그레이드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방향으로 모색 중이다. 또한 불교방송이 최대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형태로 연계성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선 사장은 “불교방송은 인건비 비율이 42%로 다른 회사보다 높다”면서 “하지만 방송국의 재산은 사람과 콘텐츠다. 인력과 장비,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없이 방송 역량 강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선 투자, 후 매출 증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방송은 오는 11월 1일 부실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정식으로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matp79@hyunbul.com

## “2017년 4월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 노력”

### 방한추진회, 공식 발족하고 본격 활동 시작

### 올해 말까지 추진단 구성 100만명 서명 운동 추진

그간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활동해 왔던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과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오는 2017년 4월 방한 성사를 목표로 사업에 들어간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대표 금강, 이하 방한추진회)는 10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 보고와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방한추진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공식 발족을 결의하고 상임 대표에 금강 스님, 공동대표에 진옥 스님·박광서 교수, 집행위원장에 월호 스님을 추대했다. 또한 9월 5일부터 12일 달라이라마를 친

견하고 방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방문해 한국인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한추진회는 2017년 4월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범국민적 지지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순회법회와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승가 100명, 재가 100명으로 이뤄진 추진단 구성과 UCC 홍보영상 공모전,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임대표 금강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수차례 타진됐지만 한국의 비자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추진회는 향후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며,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미국·중국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10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 보고와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대사관에도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한추진회는 2013년 10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7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후 울산, 부산, 대전 등을 순회하며 지역 법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10만명 서명을 받아냈다. 02)730-5911 **신성민 기자**

# 비구니승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비구니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해서 비구니회장 선거가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및 대중스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이번에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통해 저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구니 승가의 변화를 염원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구니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종단발전의 한 축으로서 비구니 승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첫째도 화합이요, 둘째도 화합입니다.

부득이하여 선거를 통해 당락을 결정하긴 했지만 다 같이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승자와 패자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함께 한 자민스님의 공약도 수렴하여 심본 비구니회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격언처럼 비구니 승가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를 우직하게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세워 전국비구니회의 위상과 청정성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제방의 비구니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전국비구니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6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관심과 지지는 전국비구니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비구니들의 구심점이 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전국비구니회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화합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비구니 승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동안 고단한 여정을 함께한 선거대책위원회 증명 및 고문스님, 후보추대위원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회에 참석하신 제방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59(2015)년 10월 12일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당선자 **육문 합장**

